



(auri)



No. 45

2016.12.31

# 한옥정책 브리프 hanok policy brief

## 2016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분석

김꽃송이 연구원, 고영호 부연구위원

### | 요약

- 2016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으며, 전국 16개 광역시·도에 거주하는 국민 1,000명을 대상으로 한옥에 대한 인식, 한옥 및 한옥마을 수요특성을 파악하고자 함
- 본 조사에서는 2013년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변화추이와 2016년도의 현황을 분석함
- 조사결과, 응답자의 대다수가 한옥을 직·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으며, 2013년도 조사결과 대비 관광체험을 통해 한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함
- 한옥에 대한 호감도 및 거주의향은 2013년도 결과와 근접하게 높게 나타났으며, 한옥으로서 목구조와 기와지붕은 유지하되 현대생활의 편의성을 얻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한옥 거주 희망자는 한옥 거주 지역 결정 시 자연환경의 쾌적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1시간 이내의 도시 근교에 거주하기를 선호하며, 한옥 구매 결정 시 구매 비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함
- 한옥마을 거주 희망자는 개별 맞춤형 한옥을 가장 선호하며, 한옥 적극 거주 고려층에서는 개별 맞춤형 한옥 뿐 아니라 완공된 한옥을 분양 받기를 원하는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남

# 1. 전국단위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개요

## ■ 전국단위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 실시(2013, 2016)

- 국가한옥센터에서는 한옥인식 및 수요특성 분석을 토대로 한옥 실수요 확대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전국단위의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
- 2016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는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조사로, 2013년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의 변화추이와 2016년도의 현황을 파악함

## ■ 2016년도 대국민 한옥 인식 및 수요특성 조사

- 본 조사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시·도에 거주하는 국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 특성에 따른 한옥 인식,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한 수요특성 등을 조사함

표 1. 조사 개요

| 구분          | 내용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모집단         | 전국 만 30세 이상 ~ 만 65세 이하 성인남녀  | 일반국민 대상               |
| 표본수         | 일반국민 : 1,000명, 전국 16개 광역시·도  |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           |
| 표본추출 방법     | 일반국민 :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무작위 비례 할당<br>한옥 거주 희망자 :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유의 할당                      | 2016년 7월 주민등록 인구현황 근거 |
| 조사방법        |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:1 대면면접조사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사기간        | 2016년 7월 27일 ~ 2016년 8월 22일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응답자 특성 분류체계 | 성별, 연령, 거주 지역, 가구주 직업, 가족 형태, 월평균 소득 수준, 현 거주주택, 현 주택 소유형태, 현 주택 건평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사내용        | 응답자 특성별 한옥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, 한옥 수요 특성, 한옥마을 수요특성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사항목 구성체계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조사업체        | 한국리서치  |                       |



## 2. 한옥에 대한 인식

### ■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직·간접적으로 한옥을 경험

- 응답자의 대다수인 96.1%가 ‘한옥을 직·간접적으로 경험’한 적이 있으며, 주로 ‘매체 간접 경험(69.5%)’과 ‘관광체험(67.4%)’을 통해 한옥을 경험함
  - 2013년에 관광체험을 통한 한옥 경험이 47.9%였던 것에 비해 2016년도에는 그 비율이 19.5% 증가함

### ■ 응답자 83.1%가 한옥에 대해 호감

- 응답자의 83.1%가 한옥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그림 1. 한옥에 대한 경험(2013, 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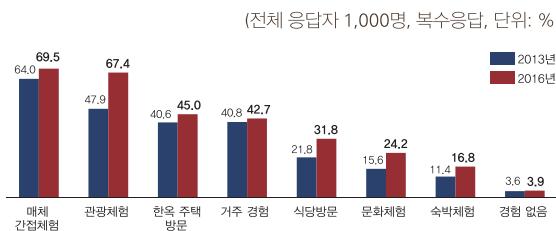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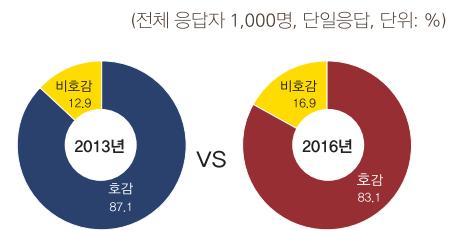


그림 2. 한옥에 대한 호감 여부(2013, 2016)



### ■ 한옥의 필수요소는 기와지붕이며, 목구조에 기와지붕을 얹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인식

- 일반인에게 한옥으로 인식되는 범위는 ‘전통적인 구법으로 목구조에 기와지붕을 얹은 건축물(78.5%)’이거나, ‘현대적 공간으로 변형되었으나 목구조에 기와지붕을 얹은 건축물(74.3%)’임
- 2013년 조사결과 대비 ‘현대적 공간으로 변형되었으나 목구조에 기와지붕을 얹은 건축물’ 응답이 9.7% 증가하여, 한옥의 인식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남
- 한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는 ‘기와지붕(94.9%)’, ‘대청마루 등 내부공간(77.4%)’, ‘기둥·보가 노출된 목구조(77.6%)’, ‘마당·담장 등 외부공간(72.7%)’으로 나타남(복수응답)

그림 3. 현대 한옥의 인식 범위(2013, 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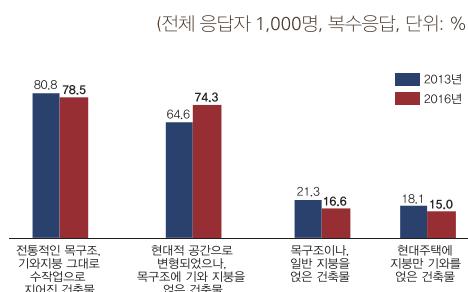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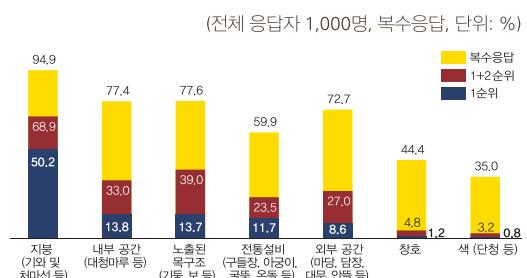


그림 4. 한옥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(2016)



### 3. 한옥 잠재수요 특성

#### ■ 한옥 거주 희망자는 56.7%

- 향후 한옥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수요자는 56.7%로, 2013년도 조사결과인 57.5%와 유사한 수치로 나타남
- 한옥에 거주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30.4%로, 2013년도 조사결과 대비 7.3% 증가함
- 한옥 거주 의향은 ‘56~65세(61.8%)’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한옥에 거주할 의향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‘30~45세(32.3%)’로 나타남
- ‘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(69.1%)’가 한옥 거주 의향이 가장 높고, ‘한옥을 경험해보지 않은 응답자(66.7%)’가 한옥 거주 의향이 가장 낮아 한옥 경험 여부에 따라 한옥 거주 의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#### ■ 한옥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, 건강, 개방적 구조

- 한옥 거주 희망자가 한옥에 거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‘심리적 안정감(37.7%)’이며, ‘건강(24.4%)’, ‘개방적인 구조(12.5%)’ 순으로 나타남
- 한옥 거주 희망자가 한옥 거주 시 가장 우려하는 점은 ‘겨울철 난방문제(20.7%)’, ‘고가의 주택비용(20.0%)’, ‘사생활 보호 및 방법 취약(16.3%)’, ‘유지관리의 어려움(13.0%)’ 등으로 나타남(1순위 기준)
- 한옥 관심 정도에 따른 고가의 주택비용 우려 비율을 살펴보면, ‘한옥 거주 적극 고려’(22.5%)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그림 6. 향후 한옥 거주 시, 우려되는 점(2016)

(한옥 보통+거주 의향자 857명, 복수응답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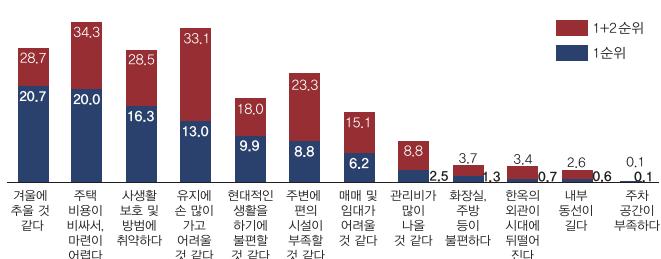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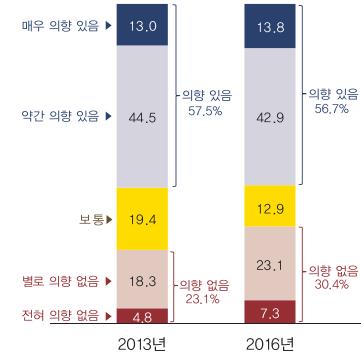
표 2. 한옥 관심 정도에 따른 고가의 주택비용 우려 비율(1순위, 2016)

(한옥 보통+거주 의향자 857명, 단일응답, 단위: %)

| 한옥 관심 정도 | 구분          | 고가의 주택 비율(%)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| 한옥 거주 적극 고려 | 22.5         |
|          | 한옥 거주 고려    | 18.7         |
|          | 한옥 관심       | 21.8         |
|          | 한옥 저관여      | 18.2         |
|          | 무관심         | 16.4         |

그림 5. 한옥 거주 의향(2013, 2016)

(전체 응답자 1,000명, 단일응답, 단위: %)



## ■ 한옥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현대생활의 불편함, 겨울철 난방문제

- 한옥 거주 의향이 없는 응답자가 한옥에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‘현대생활의 불편함(24.3%)’, ‘겨울철 난방문제(22.0%)’가 주로 언급되었으며, ‘고가의 주택비용(14.5%)’, ‘유지관리의 어려움(9.5%)’도 거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(1순위 기준)
- 특히, 겨울철 난방문제는 ‘56~65세(29.6%)’의 응답자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, 한옥을 직·간접적으로 경험한 응답자 중 ‘한옥 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(31.0%)’가 가장 우려함
- 다만, 한옥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더라도 한옥 거주 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‘한옥에 거주할 의향이 없는 것(77.9%)’으로 나타남

## ■ 한옥 거주 희망자가 한옥 구매 시, 가장 큰 고려 요인은 구매 비용

- 한옥 거주 희망자는 한옥 구매 결정 시 ‘구매 비용(55.5%)’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

그림 7. 문제점 개선 시, 한옥 거주 의향(2016)  
(한옥 비거주 의향자 304명, 단일응답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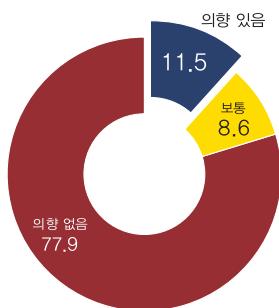


표 3. 연령 및 한옥경험 차이에 따른 한옥 거주 비희망 사유로서의 겨울철 난방문제 응답 비율(1순위, 2016)

| 구분       |          | 겨울철난방(%)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연령       | 30~45세   | 21.9     |
|          | 46~55세   | 16.1     |
|          | 56~65세   | 29.6     |
| 한옥<br>경험 | 한옥 주택 방문 | 25.5     |
|          | 한옥 식당 방문 | 18.6     |
|          | 한옥 숙박 체험 | 26.8     |
|          | 한옥 문화 체험 | 21.3     |
|          | 한옥 관광 체험 | 17.5     |
|          | 매체 간접 경험 | 16.0     |
|          | 한옥 거주 경험 | 31.0     |
|          | 경험 없음    | 42.3     |

- ‘구매 비용’은 한옥 실수요자에 가까운 ‘한옥 거주 적극 고려층(63.3%)’과 ‘56~65세(59.7%)’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

그림 8. 한옥 구매 결정 시 고려 요인(1순위, 2013, 2016)  
(한옥 보통+거주 의향자 2013년 927명, 2016년 857명, 단일응답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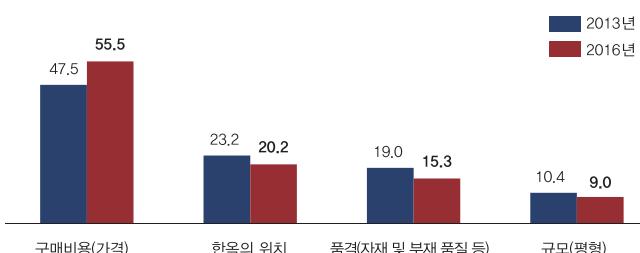


표 4. 월평균 소득 및 한옥 관심 정도별 한옥 구매 결정 시 고려 요인(1순위, 2016)

| 구분             |          | 구매비용(%)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월평균<br>소득      | 30~45세   | 53.4    |
|                | 46~55세   | 55.2    |
|                | 56~65세   | 59.7    |
| 한옥<br>관심<br>정도 | 거주 적극 고려 | 63.3    |
|                | 거주 고려    | 62.2    |
|                | 한옥 관심    | 48.5    |
|                | 한옥 저관여   | 49.3    |
|                | 무관심      | 57.4    |

## ■ 한옥 희망 거주 지역은 도시 근교

- 한옥 거주 희망자는 ‘도시 근교(63.5%)’에서 거주하기를 가장 원하며, 도시 경계로부터 ‘1시간 내외(43.5%)’, ‘30분 내외(41.2%)’로 떨어진 거리를 선호함
- 지역별 거주자의 구체적인 희망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, ‘서울’ 거주자는 ‘경기도 양평군(8.6)’, ‘경기도 남양주시(7.1%)’를, ‘경인’ 거주자는 ‘경기도 용인시(14.6%)’를, ‘부산/울산/경남’ 거주자는 ‘경남 양산시(11.0%)’를, ‘대구/경북’ 거주자는 ‘경북 포항시(20.7%)’를, ‘대전/충청/강원/세종’ 거주자는 ‘충남 금산군(11.0%)’, ‘강원 홍천군(11.0%)’를, ‘광주/전라’ 거주자는 ‘전남 장성군(17.9%)’, ‘전남 완주군(17.9%)’를 가장 선호함

그림 9. 한옥 희망 거주 지역 범위(2016)

(한옥 보통+거주 의향자 857명, 단일응답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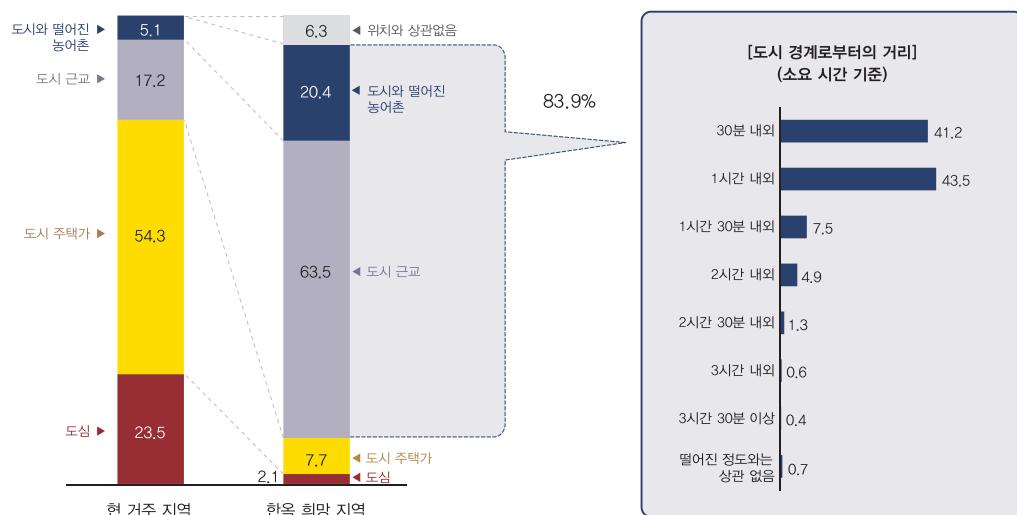


표 5. 지역별 거주자의 구체적인 한옥 희망 거주지역(시군구 지역, 1·2·3 순위, 2016)

(한옥 보통+거주 의향자 857명, 단일응답, 단위: %)

| 응답자의 수(명) | 현 거주 지역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서울             | 경인             | 부산/울산/경남       | 대구/경북          | 대전/충청/강원/세종    | 광주/전라          |
| (197)     | (197)          | (274)          | (118)          | (82)           | (91)           | (95)           |
| 1순위       | 양평군<br>(8.6%)  | 용인시<br>(14.6%) | 양산시<br>(11.0%) | 포항시<br>(20.7%) | 금산군<br>(11.0%) | 장성군<br>(17.9%) |
| 2순위       | 남양주시<br>(7.1%) | 화성시<br>(5.1%)  | 기장군<br>(8.5%)  | 달성군<br>(13.4%) | 홍천군<br>(11.0%) | 완주군<br>(17.9%) |
| 3순위       | 김포시<br>(5.1%)  | 파주시<br>(4.4%)  | 울주군<br>(8.5%)  | 경주시<br>(13.4%) | 청주시<br>(9.9%)  | 군산시<br>(13.7%) |



## 4. 한옥마을에 대한 인식

### ■ 한옥 거주 희망자 중 한옥마을에 입주하길 원하는 응답자는 43.3%

- 한옥 거주 희망자 중 43.3%는 한옥마을에 입주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42.4%는 개별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
- ‘서울(46.2%)’, ‘경인(42.3%)’, ‘부산/울산/경남(52.5%)’, ‘광주/전라(47.4%)’ 지역 거주자들은 개별한옥보다 한옥마을에 입주하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, ‘대구/경북(61.0%)’, ‘대전/충청/강원/세종(46.2%)’ 지역 거주자들은 한옥마을 보다 개별한옥에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
- 한옥 거주 적극 고려층은 ‘한옥마을에 거주(34.2%)’ 보다는 ‘개별한옥에 거주(54.2%)’를 더 선호함

그림 10. 한옥마을 거주 의향(2013, 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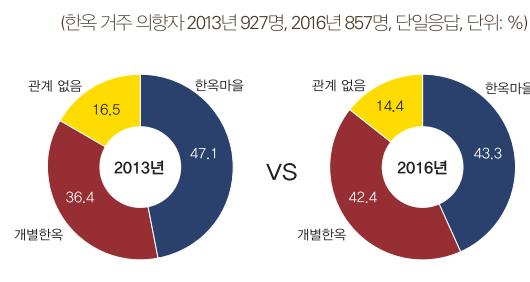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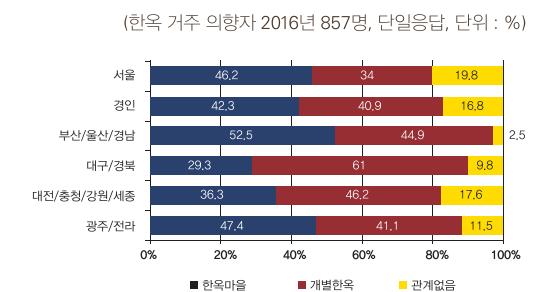


그림 11. 지역별 거주자 한옥마을 거주 의향(2016)



### ■ 한옥마을 거주 희망자는 개별 맞춤형 한옥 선호

- 한옥마을 거주 희망자는 ‘개별 맞춤형으로 설계·건축된 한옥(52.0%)’을 가장 선호하며, ‘한옥마을 내 완공된 한옥 중 분양(25.1%)’, ‘토지를 분양받은 후 표준화된 한옥 형식을 선택(16.0%)’, ‘완공된 한옥에 전세 및 월세 형식으로 거주(6.9%)’ 순으로 선호함
- 한옥 적극 고려층도 ‘개별 맞춤형으로 설계·건축된 한옥(45.5%)’을 가장 선호하나, ‘한옥마을 내 완공된 한옥 중 분양(34.5%)’에 대한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

그림 12. 한옥마을 희망 입주형태(2013, 20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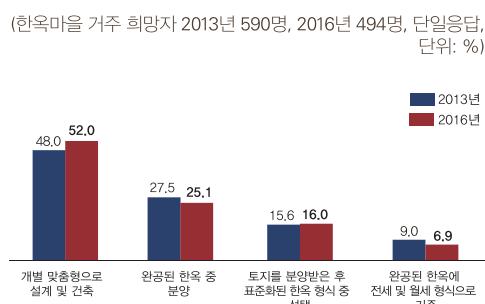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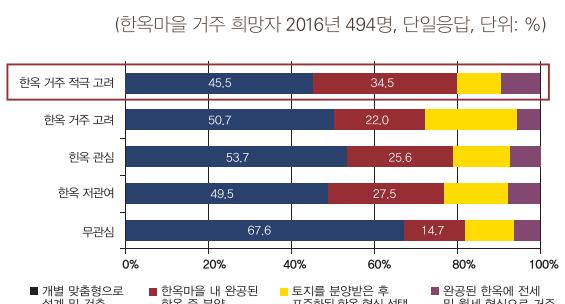


그림 13. 한옥 관심 정도에 따른 한옥마을 희망 입주형태(2016)



## ■ 한옥 주택 지원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

- 한옥 거주 희망자는 대부분 한옥 주택 지원 정책이 ‘필요하다(70.5%)’고 인식하고 있으며, 한옥 주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‘한옥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(47.0%)’, ‘한옥 주택 건축자금 대출 지원(17.4%)’이 가장 많음
- ‘한옥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’에 대한 응답 비율은 ‘30~45세(51.1%)’, ‘대전/충청/강원/세종(68.8%)’, ‘광주/전라(60.8%)’, ‘월평균 400만원 미만 소득층(50.7%)’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‘한옥 주택 건축자금 대출 지원’에 대한 응답 비율은 ‘56~65세(19.4%)’, ‘광주/전라(25.7%)’, ‘월평균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(20.1%)’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그림 14. 한옥 주택 지원 정책 필요성 및 필요한 정책(2016)

(한옥 보통+거주 의향자 857명, 단일응답, 복수응답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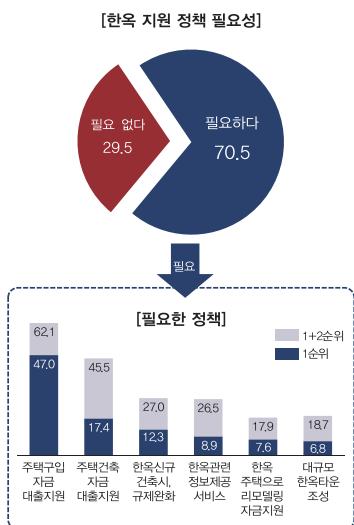


표 6. 연령, 거주 지역, 월평균 소득에 따른 한옥 주택 지원 관련 필요정책 응답비율(2016)

(한옥 보통+거주 의향자 857명, 단일응답, 단위: %)

| 구분        |             | 한옥주택<br>구입자금<br>대출지원(%) | 주택건축<br>자금대출<br>지원(%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령        | 30~45세      | 51.1                    | 15.3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46~55세      | 45.2                    | 18.8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56~65세      | 41.7                    | 19.4                  |
| 거주 지역     | 서울          | 41.7                    | 13.0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경인          | 35.6                    | 19.6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부산/울산/경남    | 50.9                    | 15.7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대구/경북       | 46.9                    | 18.4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대전/충청/강원/세종 | 68.8                    | 10.9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광주/전라       | 60.8                    | 25.7                  |
| 월평균<br>소득 | 400만원 미만    | 50.7                    | 19.0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400~499만원   | 48.4                    | 17.2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500~599만원   | 40.8                    | 10.7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600만원 이상    | 44.6                    | 20.1                  |

문의 | 김꽃송이 ksikim@auri.re.kr  
고영호 yhko@auri.re.kr



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김대익

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, 701

전화 044-417-9600 팩스 044-417-9609 www.hanokdb.kr